열린세상

복합쇼핑몰엔 계급성이 없다

정진탄
뉴미디어본부장 겸 논설위원

지난 2월 대선 기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송정매일시장에서 유세를 통해 복합쇼핑몰 이슈를 던졌을 때, '아 이것은 큰 것인데…' 하고 직감했다. 그 전까지 복합쇼핑몰 유치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와도 헛바퀴만 돌았다. 광주에서 복합쇼핑몰을 짓자고 하는 발상 자체가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왠지 모를 가위눌림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한 차례 건립 무산 학습효과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선 후보가 직접 유치를 언급했으니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거대 문화공간, 또 다른 세상

윤 대통령이 복합쇼핑몰 이슈에 불을 댕기기 훨씬 전 '더현대 서울', 스타필드 등을 방문한 바 있는 필자는 이런 건물이 광주에 들어오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대규모 건물이 들어올 부지가 없어서라기보다 세련되고 엣지 있는 건물이 세워지려면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을 것이라고 지레 겁먹었기 때문이다. 도심이든 외곽이든 이 엄청난 쇼핑 빌딩이 광주에 들어선다고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사회세력, 애초 쇼핑이란 글자에 무조건적인 거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각오해야 한다.

어쨌건 '더현대 서울'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필자는 순간 딴 세상에 와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내부는 쇼핑객을 맞아들이는 공간이 아니었다. 시민들이 활보하며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 디자인돼 있으며, 차담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시설로 둘러싸여 세상 속의 또 다른 세상이었다. 기존 백화점과는 차원이 다른 쇼핑 공간의 개념이며 쇼핑을 넘어선 하나의 거대 문화공간이 펼쳐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대적 쇼핑 공간이 광주 도심 한복판에 모습을 드러내면 한동안 상당한 문화지체, 쇼핑 지체 현상을 겪는 시민이 많을 것이란 우려도 하게 됐다. '더현대 서울'과 같은 쇼핑·문화 복합공간을 미리 경험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갑작스러운 별세계에 시민들이 진입하면서 뒷걸음질 치거나 내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디스플레이된 상품과 직원들의 세련된 서비스에 적응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스꽝스럽고 촌스러운 걱정을 해봤다.

광주 시민들은 근현대사의 모진 세월 속에서 안락한, 호화로운 쇼핑·문화공간을 누리지 못하며 밋밋한 도시 생활을 영위해왔다. 아직도 복합쇼핑몰이란 단어에 체질적인 거부감을 나타내는 부류가 다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광주지역 50대 남자가 복합쇼핑몰에 냉담함을 가장 많이 보인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는 무엇 인고 하니 아마 최루가스를 가장 많이 흡입한 세대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세대는 대학 다닐 당시 민주화 투쟁을 벌이며 매판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란 용어로 상업성을 극도로 혐오했다. 하다못해 여성들의 다소 짙은 화장에 대해서도 지탄하곤 했다. 유명 브랜드 패션을 걸치는 것은 죄악시할 정도였다.

그런데 어쩌랴. 세월은 변하고 변해서 천민, 매판자본주의란 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되레 귀족노동자들이 출현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세상을 맞았으니.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광주에 복합쇼핑몰이라니 가당키나 하는 가란격정은 접어두시라. 이미 광주 도심은 럭셔리한 수입 자동차들로 깔려 있고, 쇼핑을 싫어하는 50대는 이런 차종을 몰고 골프장으로 향하고 있지 않는가.

50대 세대의 자녀들은 취업난으로 허덕이며 스터디카페를 전전하고 있다. 공부에 지친 이들에게 현대적인 오브제로 치장된 쇼핑몰을 거닐며 연인끼리 담소를 나누고, 또 파스타를 먹으며 젊은 날의 시름을 달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공간을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50대가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자녀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이 쇼핑몰을 나돌아 다니는 일이 아닌 것이다. 이들에게 현대적 의미의 해방구가 필요하다.

현대인의 새로운 문물 수용

복합쇼핑몰을 가보면 사실 쇼핑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그냥 복합 문화공간을 즐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한 주간의 쌓인 스트레스를 날리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들을 상업성에 찌들어 있는 인간들이란 삐딱한 시선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다. 소위 '있는 녀석들', 부르주아의 소비문화 향유의 장이 아닌 것이다. 서로가 어울리며 현대적인 문화와 매너를 익히는 것이며 서비스를 공유, 업그레이드·업데이트 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대 도시 생활에서 긴요한 공존의 법칙을 알게 되고 비매너의 어투, 태도, 사고방식을 세련화해 가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21세기 새로운 문물을 우리의 삶 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광주지역은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지금까지 축적된 복합쇼핑몰의 노하우와 문화 서비스를 느끼는 최상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가 수년 내에 많이 달라질 것이다.

사설

순탄치 않은 민선8기 시정 다시 가다듬길

시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서 출범한 민선 8기 광주시 강기정호가 순탄치 않은 대내외 환경으로 시련을 겪고 있다. 문화와 경제 관련 경력이 충분치 않은 문화경제부시장 임명에 지역사회의 불만이 강하게 제기된 가운데 첫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일부 조정됐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다가 일부 수정을 거쳐 임시회 폐회일인 25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시 조직개편안 마련 과정에 의회와의 소통이 사실상 없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신설되는 기구를 비롯해 통폐합 및 분리되는 업무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는 지역 중심 이슈 중 하나인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9,0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지역사회 내부의 논란이 일파만파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복합쇼핑몰 유치를 약속했다고는 하나 민간 투자 영역을 정부 주도 또는 국비 예산으로 과하게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전국적인 이슈인 반도체 육성 산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어 지자체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강 시장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상생 협력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지방대의 관련 인재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강 시장은 출범 초기 현안을 5+1로 표현하고 빠르게 답을 내리겠다고 했다. 5대 현안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된 지산IC 폐쇄 여부, 복합쇼핑몰 유치, 백운지하차도 개통, 일신방직·전방 부지 개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을 꼽았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을 5+1의 1로 규정하고 특별법 재개정 등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유치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이 난관에 부딪히고 무엇보다 시정을 이끌기 위한 조직개편이 지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한 달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여러 악재를 슬기롭게 돌파해가기 위해 정책 및 전략 리셋이 필요해 보인다.

'돈 벼락' 교육교부금의 개편 필요성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이 재정 운용에 여유가 생기면서 유초중등 교육비로 받은 교육교부금의 상당액을 기금으로 적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교육교부금 규모는 약 8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0조원 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다. 2015년(39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내국세의 20.79%가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는 구조 덕분이다. 초과세수 53조원을 바탕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시·도교육청 17곳이 뜻하지 않게 받게 된 교부금만 11조원이 넘는다.

올해 전남도교육청도 1조2,282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1,82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추경 예산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도 교육청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6,826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478억원 등 전체 세입 예산 중 75.7%인 9,304억원을 기금에 적립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조만간 6,20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정확한 세출 예산 항목은 다음 주에나 나올 예정인 가운데 전남도처럼 수천억원이 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이다.

이런 현상은 타 시·도 교육청도 비슷하다. 반면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해제를 요구하는 등 살림이 어렵다며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부금 확대로 1인당 초중등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한 반면 1인당 고등교육비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방만한 운영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였다. 멀쩡한 책걸상을 바꾸거나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무료로 나눠주는 불요불급한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일괄 지급하게 돼 있는 교육교부금을 개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고

수난사고로부터 안전한 여름철 보내자

오원균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장

초복이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다. 작년보다 때 이른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시민들은 더위를 식히고 휴식을 취할 곳을 찾아 산으로 계곡으로 피서를 떠날 준비를 한다.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만큼 무엇보다도 피서지에서의 안전사고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수난사고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작은 주의만 가졌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 아쉬움이 크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례를 보면 해수욕장의 경우 갑자기 바닥의 경사가 지기 때문에 ▲해안가 인근 ▲해수욕장 가이드라인 안쪽 ▲사람이 보이는 쪽에서 수영을 해야 유사시 구조를 더욱 빨리 받을 수 있다.

해수욕장에서 사고로 이어지는 가장 큰 경우는 음주 후 수영이다. 음주를 하면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기온이 섭씨 20~22℃만 되도 추위로 인한 충격으로 심장 기능을 멈출 수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먼 바다 쪽으로 되돌아가는 이안류의 경우 해류방향과 반대인 해변으로 헤엄치지 말고 이안류 흐름이 없는 곳까지 이동 후 해변으로 돌아가야 한다. 수영 실력이 있는 사람은 해변을 향해 45도 각도로 수영해서 되돌아와야 한다.

신발을 물에 빠트려 불어난 물에 신발을 건지려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장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신발을 건진다는 것을 포기해야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장마나 태풍 시 불어난 계곡물로 고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리하게 탈출하려다 휩쓸려가는 사고가 많다. 특히 자동차로 탈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만큼 자제해야 한다. 이럴때에는 무리한 탈출보다는 보온을 유지하면서 구조 요청을 하고, 안전하게 기다려야 한다.

수영금지 등 위험표시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수영하면 사고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야 한다. 수영금지 구역은 수심이 깊거나, 조류의 흐름이 셀 수도 있으며, 물 웅덩이가 있을 수도 있다. 안내표지를 준수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다.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의 관찰 아래 물놀이를 하도록 해야 한다. 도넛형 물놀이 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기 키보다 물이 깊다는 것을 아는 순간 허우적거리기 시작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자의 감시가 필수 사항이다.

수난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허우적거리다가 오히려 물을 마시고 당황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당황하지 말고 팔과 다리를 벌려 물에 편히 누워 호흡하고 몸이 뜨게해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을 움직여 탈출해야 한다.

익수자를 발견했을 때는 자신의 수영 실력을 자만하지 말고, 무리하게 직접 구조하기보다는 인근의 장대나 튜브 등 물에 뜨는 것을 던져 구조하는 방법이 안전하다. 관심과 주의로 수난사고를 예방해 즐겁고 안전한 여름철을 기대해 본다.

독자광장

'사기 쇼핑 사이트' 주의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가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사례를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 고가의 유명 브랜드의 골프채를 구매했으나, 막상 제품을 받고 보니 모조품으로 구매처에 문의를 하려 했지만 연락되지 두절된 상태였다.

이처럼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 사기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모조품을 받거나 제품을 아예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사기 온라인 쇼핑몰이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만큼 정교해 일반인이 속기 쉽다는 것이다.

또 고가의 제품을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는 것을 아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높은 가격대 제품을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그리고 현금 결제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속여 신용카드보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쇼핑몰의 서버가 해외에 있을 경우 검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전에 꼼꼼히 확인을 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지나치게 할인하는 제품에 대해 의심을 하고 사기 사이트라는 확신이 들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 | 문화체육부 (062) 720-1071 | 월간국 (062) 720-1007
경제부 (062) 720-1067 | 사진부 (062) 720-1040 | 사업국 (062) 720-1011,1099
사회부 (062) 720-1050 |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2부 (062) 720-1043 | 편집부 (062) 720-1073 | 관리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자수첩

강기정호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고민해야

길용현
정치부 차장

강기정 광주시장이 구상하는 민선 8기 시정에 문화정책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문화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강 시장이 제시한 문화정책 대부분은 전임 시장의 사업 승계에 그치고 있는 데다, 미래 방향성도 찾아볼 수 없어 '문화도시 광주'의 쇠락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최근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광주 내 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5대 시정 목표를 담은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향후 4년 광주시정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지만, 신경제 도시 등 경제정책과 5+1 현안 등에 대한 해법 이외에 주목할만한 문화정책은 담겨 있지 않았다.

강기정 호가 내세운 문화정책은 크게 4가지였는데, 5대 시정 목표 중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의 범주에 국한됐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사업의 경우 올해 3월 연차별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됐고, 문화도시 환경조성 분야 등 63개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다.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생태계 조성,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 문화산업 투자환경 조성 및 기업 유치 등도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거나 민선 7기 성과 승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 중 문화관광체육실의 관광진흥과를 신설 부서로 이관되면서 관광과 문화가 분리, 관련 부서의 역량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문화도시 광주의 명성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정책 수립과 현안들에 대한 방향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문화는 개인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품격과 매력을 증대시키는 원동력이다. 잘 만든 문화·예술·관광 콘텐츠 하나가 세계인의 관심을 끌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산업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다.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광주의 역사와 색깔을 살린 다양한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전당·비엔날레·유네스코 지정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문화도시의 미래상을 조속히 발굴해 주길 바란다.